

2026. 6. 2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재훈

02-2133-72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www.seoul.go.kr>
상단 분야별정보 > 주택 > 새소식

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속도전' 나선다.. 전자동의서·총회 전면 지원

- '전자총회' 비용 지원 확대, 3년내 착공 가능 조합에 보조금 100% 전액 지원
- '전자서명동의' 본격 지원... 입안요청·제안 동의서 전자서명 초기 절차 단축
- 22일(월)부터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모집...지난해 총회 비용 53% 절감 효과

☐ 수개월씩 걸리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

☐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총회 보조금 100%로 확대,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집중 지원>

☐ 서울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6월 22일(월)부터 모집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를 지원했다.

□ 특히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8만 5천 호 규모)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천 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① 전자방식 최초 활용, ② 중요 안건 여부, ③ 비용 절감 노력(참석수당 미지급, 홍보 요원(OS) 미활용)으로 구성된다.

□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되었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전자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서명동의’ 지원 시작… 입안요청·제안 동의 전자화 기간 단축 >

- 또한,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추진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 조합 현황 > ※ 조합 외 시행방식 제외

[재개발사업] - 36곳

(강북 지역) 한남2, 한남3, 갈현1, 증산5, 불광5, 수색8, 신당8, 제기4, 제기6, 금호16, 신영1, 이문4, 신월곡1, 미아3, 상계2, 전농, 청량리6, 청량리8, 동선2, 성북2, 정릉골, 신길음1, 마포로1-10, 공덕6, 영등포1-2, 신정1-3

(강남 지역) 노량진1, 노량진3, 노량진4, 노량진5, 노량진7, 흑석11, 마천4, 봉천14, 신림2, 봉천4-1-3

[재건축사업] - 34곳

(강북 지역) 홍제3, 미아4, 미아9-2, 월계동, 응봉1, 장안현대아파트

(강남 지역) 방배7, 방배13, 방배14,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신반포20차, 신반포27차, 방배신동아아파트, 신정4, 방화3, 방화5, 문래진주아파트, 유원제일2차아파트, 남성아파트, 보광아파트, 오류동 현대연립, 천호우성아파트, 잠실우성4차아파트, 가락삼익맨션, 가락미륵아파트, 가락프라자아파트, 가락상아1차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한양3차아파트,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산호아파트